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폐동맥고혈압 바로알기' 캠페인

심장혈관내과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류마티스내과와 함께 '폐동맥고혈압 바로알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폐동맥고혈압은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에 이상이 생겨 폐동맥의 혈압이 상승하는 질환으로 평균 폐동맥압이 25mmHg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진단을 위해서는 특발성폐동맥고혈압, 전신 경화증, 루프스 등 류마티스성 자가면역질환과 선천성심장질환 등의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된다. 이번 캠페인은 폐동맥고혈압에 대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위험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심장혈관내과 김지현 교수는 "운동 시 호흡곤란, 피로감, 어지러움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전문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02 식사도서관과 함께 '내 아이를 곧고 바르게' 바른 자세 캠페인 실시

재활의학과 남기연 전임의는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식사 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내 아이를 곧고 바르게'라는 주제로 식사도서관과 함께하는 바른 자세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바른 자세와 교정'이란 주제로 남기연 전임의의 건강강좌 후에 전방굴곡검사, 체형검사 등 근골격계 검진이 무료로 시행되었다.

특히 자세교정협회의 교정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여 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검사를 받은 약 20여명 중 정밀검사 또는 진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여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03 5월 1일 발령 '신입간호사 100일 파티' 실시

간호부는 5월 1일 발령 간호사 18명을 대상으로 입사 100일을 기념하고 격려하기 위해 '신입간호사 100일 파티'를 8월 7일 중강당에서 실시했다.

신입간호사들의 소개와 각오로 문을 연 100일 파티는 선배 간호사들이 직접 쓴 손편지와 수간호사들의 장미 전달하기에 이어서 프리셉터십 및 신입간호사 100일 소감 낭독, 케익커팅, 백일잡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가 끝난 후에 신입간호사들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100일 동안 함께 한 동료들을 격려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파티에 참석한 신입간호사는 "힘들고 지칠 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선·후배 간호사 간에 애정과 신뢰를 쌓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날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고, 선배간호사는 "100일 동안 열심히 노력한 간호사들에게 첫 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앞으로 멋지고 따뜻한 간호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04 2013년 하계 학생자원봉사활동 실시

동국대학교병원은 2013년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 동안 원내 21개 부서에서 85명의 학생들이 학생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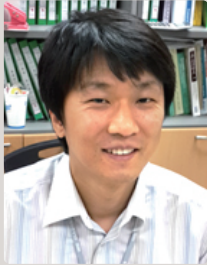
의료계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 병원으로 봉사활동을 나왔다는 한 학생은 "몸이 불편한 환우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 공부를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병원에서 꼭 일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부터는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소감을 받아 이 중 4명에게 상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며 소감은 뉴스레터에 한편씩 소개할 예정이다.



우리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HC(Hospital Couple)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 주 토크 인터뷰는 2005년 개원 당시 개원 멤버로 입사하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기고 더불어 병원커플로 결혼까지 성공한 행운의 사나이 운영지원팀에 근무하는 김철주 대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짧은 인터뷰



운영지원팀
김 철 주

- **본인 소개?** 78년생 말띠, 2005년 4월 입사, 2007년 사내 커플로 연애 중 결혼에 성공해서 탄현동에 살고 있는 운영지원팀 인사담당 김철주입니다.
- **예쁜 딸 자랑 좀?**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라는 의미에서 누리란 이름을 지었어요. 눈이 크고 예쁘고 잘 웃고 잘 울며 남자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ㅎㅎ
- **건강 때문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2012년 11월 경 간암판정을 받고 정신적인 혼란을 겪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병원 직원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게 되어 지금은 수술 전 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 **현재 부서에 입사 때부터 있었는데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예쁜 딸 누리 결혼식장에 꼭 손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 **맺음말?** 병원 식구들과 함께 큰 이변이 없는 한 좋은 직장을 만들어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가족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알 리 미

아이성장 토크쇼

진행 : 윤영미 아나운서 | 강사 : 제 1부-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 제 2부-개그맨 염경환
일시 : 8월 20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5층 대강당

영화상영

제목 : 7번방의 선물 | 일시 : 8월 22일 (목) 오후 1시 | 장소 : 5층 대강당

원당역에서 함께하는 한방무료진료

기간 : 8월 19일 (월) ~ 8월 30일 (금) 오전 7시 30분 부터 9시까지 | 장소 : 원당역 매표소 앞

